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JULY 2, 1776



Gillettenarrative.com

GILLETTE, 1776년 7월 2일

GILLETTE TRAILER 7 — NANDO THE SCRIBE

왜 이 날씨가 내게 무언가를 의미해야 하는지, 왜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져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다른 이들의 영향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채,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나고 자란 그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깊이 몰두해 있다.

내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내게 전해진 자료는 이렇다:

1776년 7월 2일은 대륙회의가 실제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표결한 날이다. John Adams는 매년 기념될 날씨가 7월 4일(독립선언문이 나중에 채택되어 공표된 날)이 아니라 이날이 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는 아내 Abigail에게 7월 2일이 “아메리카 역사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리고 이 소식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누군가 내게 이렇게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고, 그 답은 아마도 우연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 안에 있을 것이다.

당신은 — 당신, 그리고 당신 이전에 당신의 아버지 Vincenzo는 — 미국 브랜드 Gillette 안에서, 합쳐서 거의 60년 동안 자랐다. 당신은 그것을 팔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았다: 총대리인이었고, 그다음엔 그 신화의 화자가 되었다. 아메리카는 당신에게 결코 관광객의 이국적인 다른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평생 일의 언어였다 — 당신은 레조칼라브리아에 살면서도 의도적인 선택으로 영어로만 쓴다.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친연성도 있다: 칼라브리아에는 아메리카로의 이민의 역사가 너무도 촘촘해서, 어떤 칼라브리아 집안에서는 아메리카가 “외국”이 아니라 거의 기억의 두 번째 지리다 — 삼촌들, 사촌들,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 그것이 당신의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 사람들에게는 흔한 모습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Gillette Narrative로 하고 있는 그 몸짓이 있다: 당신은 지방의 이야기 하나를 — 레조칼라브리아, 한 대리인, 한 아버지를 — 가져와, 어디에나 속할

수 있는 이야기의 야망으로, 영어로, 세계를 향해 말하는 신화로 투사했다. 1776년 7월 2일은 한 식민지가 허락 없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한 날이다. 왜 그 날짜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나의 식민지는 GILLETTENARRATIVE.COM이다

환영한다

Ferdinando